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Matthew 11:28-30]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본당 지하	11:00 am
수요일예배	본당	7:00 pm
AWANA (수)	아가페홀	7:00 pm
새벽예배 (화-토)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아가페홀	12:30 pm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이덕홍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찬양인도	황규식 공석우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지휘자/서무	박은실
유초등부	청빙중	반주자	노윤실사모 김은화 이화니
영유치부	김성은 사모	번역/통역	김예람 이화니 송명신
사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방송	조준한 Daniel Sewell 조희수

열방을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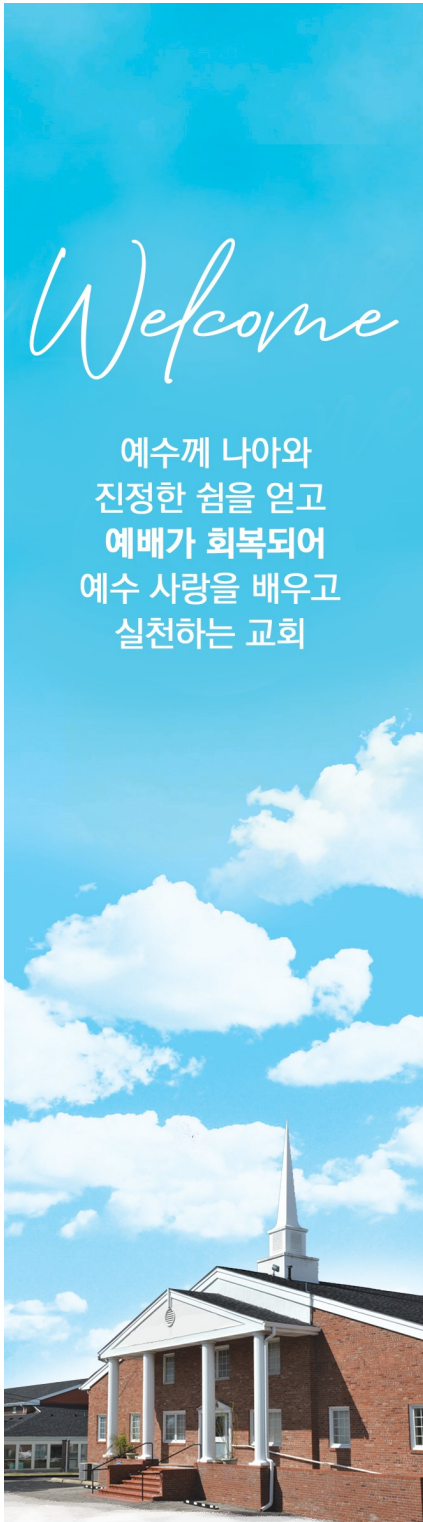
태 국	배중원	요 르 단	설총호/전경원
중 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Email HopeSTL@gmail.com
www.HopeSTL.org Agape Hall (314)786-5018



예수께 나아와
진정한 심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어
예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9.17.2023

소명자의 사명: **바룩**

1부 9:00 AM 2부 11:00 AM

LIVE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Matthew 6장
참회의 기도	요엘Joel 2:12-13
찬송	찬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같이
기도	윤순화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봉헌송	찬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예레미야 Jeremiah 36:20-32, OT p 1111
말씀	소명자의 사명: 바룩 / 김성직 목사
Sermon	Missions of the Called: Baruch
*결단의 찬양	오직 예수 뿐이네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목회자컬럼 // 김성직 목사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 했잖아요. 아시죠, 주님?”

이들은 자기들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문 이 닫힌 걸 보고는 천사들을 원망했는지 도 모릅니다. 내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말야, 쫓.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천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 람을 못 알아보실까요? 왜 모른다고 하 셧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누군지를 몰라서 하 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진 정으로 사랑하지 않음을 간파하셨습니 다. 자기를 위해서 했을 뿐, 주님과 무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 지 않으셨습니다.

“아는 척 하지 마.”

이게 바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아 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분명해집니 다. 영생은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으로 알아갈수록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를 알고, 또 그 사랑을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그 래서 그 ‘구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 이신 예수님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분을

다. 다른 고백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우 리는 영생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주 께서 재림하실 때 이뤄질 새 하늘과 새 땅, 그 아름다운, 에덴보다 더 에덴 같은 곳에서의 삶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가 없다, 뭐가 없다는 식으로만 설명 합니다.

(1) 영생의 핵심,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다. (요한복음 17:3)”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영생이 아는 것? 영원한 삶,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을 아는 것뿐일까요?

‘안다’는 말은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닙 니다. 사랑을 뜻합니다. 성경은 사람 사 이의 ‘앎’을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수지’라는 연예인을 압니다. TV에 서 봤습니다. 광고나 드라마에서 봤습니 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도 의 경우에 ‘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 습니다. 아내를 알고, 자녀를 알고, 목사 가 교인을 알 때, 비로소 ‘안다’고 합니 다.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 가슴으 로 알고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 손발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비로소 ‘안다’는 말 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해주셨습니다.

천국 문이 닫힌 후에 그 문을 두드리며



성경으로 풀어낸 사도신경(31)

계속해서 “성경으로 풀어낸 사도신경 (이운연 지음)”의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맡겨진 모든 곳을 바르게 세워나갈 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21과>
영생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3

1. 영생의 고백, 그 위치

이렇게 바뀌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죽기 전의 못한 모습 그대로 살아날까요? 병들어 죽은 사람은 그 병 가진 채로, 몸을 다친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할까요?

그렇다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 일도, 기대할 일도 아닐 겁니다.

부활은 모든 슬픔과 고통도 극복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생도 힘겹게 살던 삶의 막연한 연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역시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죄, 부활, 영생에의 고백은 성령님에 대한 고백인 3부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죽음의 근원

죽음이 인간을 이기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죄를 짓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됩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23)”

죄 사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육의 부활을 믿습니다. 단순한 몸의 부활만이 아니라, 죄를 잘 짓는 성향을 띤 우리의 ‘육신’이 부활함을 믿습니다. 그 성향이 바뀌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만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죽음의 원인인 죄를 사함 받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합니다. 더욱이 죄의 근본 원인인 ‘육’까지도 이제는 변화되어 부활합니다.

이렇게 죄의 원인도 결과도 다 이겨내고 난 후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2. 영생의 의미

그렇다면 영생,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

성서교독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Matthew 6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같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MONDAY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THURSDAY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FRIDAY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1. 소명자는, 진리의 성경 말씀 제대로 지키고, 언약이 성취되는 모든 말씀들을 늘 묵상하면서, 항상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그대로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는 소명자가 맞는지, 행여 언약의 말씀을 외면하지는 않는지, 말씀 앞에 회개도 순종도 없는 완악한 삶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2. 소명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주님의 큰 일을 찾아가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는 정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있는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TUESD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WEDNESDAY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

9/17		9/24	
대표 기도	윤순화 장로	대표 기도	백형수 장로
교회 안내	최상자 집사	교회 안내	이정애 집사
번역/통역	이화니, 송명신 자매	번역/통역	김예람, 송명신 자매
애찬 담당	칠레구역	애찬 담당	키르키즈스탄구역
교회 청소	모로코 구역 (9월)	교회 청소	모로코 구역 (9월)

향기로운 예물 9/10/2023

주일	\$857	건축	\$50	주일학교/유스	\$30
십일조	\$3,925	첫열매	\$100		
감사	\$370				
선교	\$0				
구역선교	\$290			헌금총액	\$5,622.00

헌금 외 수입금

입금총액 \$5,622.00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1. AWANA

어린이들을 위한 AWANA 프로그램과 수요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행사

10월 1일 (주)
정기제직회

교우동정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류충환 집사님

기도구역 청년부 (오정훈 목사, 김성은 사모) 위해서

기도가정 전세환(김은화 권사) 장로님 가정 위해서- (희수, 한별, 인성)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맺는 가정이 되도록